

# 전북도·군산시, 조선업 살리기 인간힘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년째 64가사 문닫아 5천여명 실직 나머지 협력업체 업종 전환·사업 다각화 등 생존 대책 강화

2017년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춰섰다. 건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재가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지만 굳게 닫힌 조선소 문을 열지 못했다.

군산지역 경제는 '불황의 공포'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현장을 지켰던 임직원과 사내의 협력업체 직원 등 수천명이 조선소를 떠났고 협력업도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지역 경제는 휘청거렸다. 통계청의 '2017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 (특별광역시 제외)에 따르면 군산의 고용률은 52.6%로 전년 동기보다 2.5%포인트나 하락했다. 군산의 고용률은 익산시(52.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2년이 흘렀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전히 조선소 재가동을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과 사업 다각화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1일 가동을 중단한 뒤 86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군산 조선현의회는 이보다 많은 68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남아있는 20개 인파의 업체들도 일감이 끊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2016년

5250명에 달했으나 이제는 300여명 남아 있는 상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지만 건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과 정부, 관계 기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만 170차례나 된다. 전북도지사가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집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100만명 서명운동도 가동 중단을 막지 못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관심 밖으로 밀린 상태다.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과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전북도는 조선소 협력업체와 인력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397억

원을 들여 '조선기자재 기업 업종 전환 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조선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와 기술 고도화, 중소형 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500여억원을 투입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조선 시장이 개선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선적으로 고사 위기의 협력업체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조선업 생태계의 근간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남원보건소 '베이비마사지 교실' 호응

남원보건소가 운영중인 베이비마사지 교실이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12일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영아기의 신체발달 및 모자의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은 아이의 몸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신체 발달과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모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도 좋다는 게 남원시 보건소 설명이다.

마사지교실에서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아이 목욕이 끝난 뒤 마사지를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마사지 기술을 전해주고 있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이 커 다음달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빠빠~ 소방차 길터주세요 정읍소방서, 긴급 출동훈련

정읍소방서가 13일 오전 11시부터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 출동훈련'을 실시한다. <사진>

이날 훈련은 소방차 출동 과정에서 시민들이 길을 비켜주는 양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소방과 경찰차량 5대가 소방서를 출발해 상습정체구간인 연지사거리, 정읍역, 정읍터미널, 샘고을시장을 거쳐 정읍시청까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통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읍소방서는 또 샘고을시장과 신대인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실시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모습.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 정읍시,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선물' 눈길

'책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자'

정읍시가 추진중인 '책꾸러미' 선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사업이다.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자녀교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의도도 반영됐다.

정읍시는 35개월까지의 영아와 보호자 대상으로 그림책 2권과 손수건, 스케치북, 가이드 북 등을 담은 예코백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시작, 110명의 가정에 책 꾸러미를 전달했다.

책 꾸러미 선물은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전달된다. 문의는 정읍기록의도서관(063-539-6453)으로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 군산·부안·고창 어민, 해상 골재채취 재개 움직임 반발

군산 어청도 인근 EEZ 구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반대

군산·부안, 고창지역 어민들이 해상 골재채취 재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과 부안, 고창지역 어민들은 지난 1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청도 인근 바다를 골재 채취단지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어민들은 "어청도 골재 채취단지에서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바닷모래를 채취해 해양 환경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또 다시 모래를 파내려는 것은 골재업자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어청도 인근에서 파낸 모래의 양은 확인된 것만 6200만㎥로 서울 남산의 1.5배에 달하며 수산자원의 서식장과 산란장이 북

구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괴됐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어민들은 "기존 모래 채취 해역의 복구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어업인의 논발을 파헤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고했다.

어민 반발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서해 EEZ 골재 채취단지 지정 공청회'는 무산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한편, 전국의 40개 골재 채취업체로 구성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은 어청도 서남방 26km 인근의 EEZ 구역을 골재 채취단지로 지정해 5년간 3580만㎥의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계획했었다.

골재 채취단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의 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 일대는 2008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됐다 가 3차례의 기간 연장 끝에 작년 12월 기간이 만료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군산 미래에너지·자동차산업 R&D특구 본격 추진

행·재정 지원 등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육성' 협약

군산에 미래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산업 특화한 연구개발(R&D)특구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일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광병선 군산산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육성'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특구 육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규제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지난해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일대 2㎞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들 기관은 재생에너지와 미래 자동차 신산업을 특화한 군산 강소특구 종합계획을 수립, 정부에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자동차 신산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조·혁신·연구 중심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경제 체질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